

전일동향

전일대비 0.60원 하락한 1,375.9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0.60원 하락한 1,375.9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50원 상승한 1,380.00원에 개장했다. 트럼프 관세 위법정책 판결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금동위 금리인하 등을 소화하며 1,385.5원까지 상승했다. 다만, 장 후반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하락 전환하며 1,375.90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4.86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80.00	1385.50	1369.50	1375.90	1381.40
엔화	950.13	955.72	942.27	954.04	-	
유로화	1554.26	1566.36	1543.05	1563.69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09	-6.02	-15.26
결제환율(수입)		-0.07	-5.19	-13.46	-28.3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 약세 전환에...1,36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8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75.90) 대비 4.40원 하락한 1,368.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 및 관세 무효화 효력 정지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 수정치는 전기대비 연율 -0.2%로 기존 잠정치 -0.3%에서 소폭 상향 조정됐다. 하지만 소비지출이 1.8%에서 1.2%로 대폭 하향되며 소비 둔화를 시사했다.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만 명을 기록하며 예상치(23만 명)를 소폭 상회했다. 대체로 부진한 경제 지표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동반 하락했다. 한편, 백악관이 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결정하자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. 이에 기존 관세가 다시 복원되며 약달러 분위기에 일조했고 유로, 파운드 등 주요 통화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를 추종하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64.60 ~ 1374.2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897.0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4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2215.73, +117.03p(+0.2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9.6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69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